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김현태 기자

+ - 🖨️ ↺

교계 | 입력 2021.10.04 13:57 수정 2021.10.05 08:15 호수 1604 댓글 2

천은사에서 원만회향 기도...가파른 오르막길 올라 지리산 속으로
이른 새벽부터 진행된 행선에 물집·돌풍 몰아쳐도 순례는 계속



천리순례 4일차는 모처럼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새벽에 시작됐다.

순례길에 장애가 오는 것은 필연이다. 그러나 장애는 신심을 더욱 증장시키는 양약일 뿐만 아니라 원력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도반이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자비순례 3일차 일정이 원만히 진행됐다. 순례단은 이날 화엄대종찰 화엄사를 출발해 지리산을 품은 정토세계 천은사를 참배하고 해발 958m의 시암재에서 바람을 풀었다. 순례는 평소보다 30분 이른 3시30분에 시작됐다. 3일간의 연휴로 차량을 이용해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은 까닭에 순례단의 안전을 위한 결정이었다.

30분의 단잠을 포기해야 했지만 모처럼 밤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새벽이었다. 지난 이틀간 심전강이 피워낸 ‘안개’라는 장애를 만나 마치 빗속을 걷는 것처럼 습한 발걸음을 옮겨야 했기에 모처럼 만의 상쾌함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NH농협은행 301-0189-0372-01
KB국민은행 023537-04-004063

최신뉴스

더보기 >



선시는 함축적으로 일려주는 인생의 사구계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연잎밥 도시락 나눔 행

근현대 불교 이끈 구하·한암 스님 조영...“역사 ...
생명나눔, 제13회 생명나눔 산사음악회 개최
“매년 늘어가는 외로운 죽음”...무연고 사망자 ...
합천 해인사, 제2회 해인사 팔만대장경 웹툰 ...
대전 계룡시종합사회복지관, ㈜에치와이 초청...
가야산 해인사 원당암, 중앙절 맞아 합동 천도...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제4회 어린이 담마스...
어린이불자들, 요리 솜씨로 ‘자연아 사랑해’

연재

< >

세심청심

차별없이 내리는 비



나의 발심수행

다라니기도 김준우(48, 법성)...



최명숙의 일상의 발견

17. 안동 봉정사 단상





지리산 천은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아침공양 후 천은사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천은사에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기도를 접수했다.

새벽 5시30분 천은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아침공양 후 천은사 참배의 시간을 가졌다. 천은사는 신라 때 창건된 고찰로 고려 충렬왕 때는 ‘남방제일선원’으로 불릴 만큼 수행처로 명성이 높았다. 그러나 조선시대 전란을 겪으며 전각 대부분이 소실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1610년(광해군 2년) 혜정선사가 소실된 가람을 중창하고 이어 1774년(영조 50년) 혜암 스님에 의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극락보전과 아미타후불탱화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날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은 천은사에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기도를 접수했다. 천은사 주지 대진 스님은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중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어 기쁘다”며 “대원력의 발걸음이 원만히 성취되고 그 상서로운 기운이 천은사로 이어져 도량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 순례기간 내내 평안하길 기도하겠다”고 인사했다.

무진등

마하의료회장 김정순 약사



이제열의 소리를 관하다

35. 지옥의 소리-상



많이 본 뉴스

- 01 18. 탈종교 시대와 불교 (2)
- 02 “부처님 가피 법보시로 갚아야죠”
- 03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심전강변을 걷다
- 04 웰컴 세대의 새로운 가치
- 05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 06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 07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08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09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 10 18. 종교 차별한 역대 정권의 수도권 도심 개발 - 상



굽이굽이 휘어진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는 삼보사찰 천리순례 순례대중.

순례단이 천은사를 떠날 즈음 진행팀의 무전기에는 숙영지의 상황이 쉼 없이 전달됐다. '강풍'이라는 장애를 만나 폴대 20여개가 부러지는 등 텐트를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반면 순례단에게는 그동안 발걸음을 무겁게 했던 '늦더위'를 날려 준 고마운 존재였다. 굽이굽이 휘어진 가파른 고갯길을 3시간여 만에 올라 숙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팀은 바람에 맞서 텐트를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시암재에 도착한 순례대중이 손을 더해 숙영지는 비로소 모습을 갖출 수 있었다.

10월4일 삼보사찰 천리순례 4일차 일정은 축원과 예불을 모신 후 부처님께 시암재 도착을 고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4일차 회향식을 마친 순례대중 일부가 서둘러 구급차로 향했다. 습한 강가를 건다가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고된 여정 속에서 발가락들이 하나둘 부풀어 오르고 굽기야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고마성(道高魔盛)이라고 했다. 도가 높아질수록 마구니가 극성을 부리듯이 순례에 대한 신심이 단단해질수록 시련도 커지는 법이다. 상처가 치유되면 더욱 단단해지듯 순례기간 이들 마음의 신심과 원력도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숙영지에 도착할 때까지 진행팀은 바람에 맞서 텐트를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편 삼보사찰 천리순례 5일차는 시암재를 출발해 해발 1079m의 성삼재를 넘어 숙영지인 일성콘도까지 26km 구간에서 진행된다. 3·4일차 순례에 함께했던 주호영 국회의원은 “많은 스님 그리고 불자들과 함께 걸으며 사찰을 참배할 수 있어 좋았다”며 “국정감사 일정으로 계속해 함께할 순 없지만 휴일마다 참석해 함께 걷고 수행하며 삼보의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말했다.

구례=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4호 / 2021년 10월13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클래식 선율로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을 응원하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달다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법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 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별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선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2개의 댓글

작성자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제발 (비회원) | 2021-10-04 17:47:59

삭제

고마하구
시내에서 전단하나 더
한사람라도 포교나 해라
참 생각한다는이 고작

앞이 흰하다

답글 작성

👍 3 🗨️ 1



나무관세음보살 (비회원) | 2021-10-04 14:08:10

[삭제](#)

천리수행 대중들의 발걸음이 한국불교종흥으로 활짝 피어오르길

답글 작성

👍 3 🗨️ 2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 편집인 : 이재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NC**